
▣ 일반논문 ▣

데이터로 본 동학농민혁명 연구 동향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史料) 아카이브 수록 국내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
 녹두팀 · 박정민

『동경대전』 간행터의 기념시설 활용 및 활성화 방안
 엄찬호

헌법적 관점에서 본 1894년 동학농민혁명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과 예우 논의를 중심으로 -
 남경국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화 전략
 홍성덕

데이터로 본 동학농민혁명 연구 동향*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史料) 아카이브 수록 국내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

녹두팀** · 박정민***

〈목 차〉

머리말

I. 분석 방법

II.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경향성 분석

III. 새로운 연구 동향과 변화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계량정보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다년간 축적된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 이 논문은 2024년 6월 27~28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주관한 '2024년 동학농민혁명 신진연구자 워크숍'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당일 발표와 심사 과정에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 전북대학교 사학과 녹두팀(송치영, 노유진, 유연서, 이혜린)

*** 전북대학교 사학과 부교수(교신저자)

경향성과 의미를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동학농민혁명 사료(史料) 아카이브’에 구축된 논문 서지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하여 1955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내 동학농민혁명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한 데이터 처리 과정과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을 서술하였다. 2장과 3장에서는 수집된 2,133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문 발행 정보와 연구 주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연구는 10년 단위로 활성화되었으며, 특히 1994년의 100주년과 2014년 두갑자를 기점으로 중요한 변화를 보였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연구는 초기의 거시적 담론에서 점차 미시적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초기 연구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개념을 밝히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최근 특정 지역이나 인물, 사건을 중심으로 한 사례 연구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을 확인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연구 동향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주요 변곡점을 탐색하였다.

주제어 :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 사료(史料) 아카이브, 디지털역사학, 연구 동향 분석

머리말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에 동학교도와 민중들을 기반으로 봉건 체제를 개혁하고, 반외세를 기치로 내건 사건이다.¹⁾ 역사의 변곡점이라 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은 당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그간 역사학뿐만 아니라 문학, 철학, 종교 등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고 새로운 통찰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조를 참조하여 기재하였다.([https://www.law.go.kr/법령/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동학농민혁명참여자_등의_명예회복_에_관한_특별법))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연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로 여러 ‘연구사 정리’ 논문이 발표되었다. 박맹수는 기왕의 연구를 시기별로 분할하여 사학사적인 흐름을 살폈다. 『천도교회월보』와 『신인간』 등의 천도교 기관지에 수록된 학술저작과 신소설의 주제 등의 다양한 저작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해방 이후 근대성 강조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바탕으로 시대별 연구 경향과 논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연구의 쟁점을 항목화하고 유관 연구를 소개하며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을 상세히 기재하였다. 이를 통해 학계간 연구 활성화나 미시사 연구와 같은 접근 방식의 확장과 사료 정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²⁾

이현희 역시 기존 연구 성과를 시계열적으로 살피고 접근 방식에 따라 연구 주제를 구분하여 그에 상응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물을 제시하였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의 용어 정립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894년 농민운동과 유관 사건들이 동학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교리와 사상적 접근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³⁾

2010년대 이후 연구사 정리로는 배항섭의 연구를 주목할 수 있다.⁴⁾ 그는 서구 및 근대 중심주의에 기반한 종래의 연구 경향을 비판하며, 이른바 ‘새로운 민중사’와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18~19세기 동학농민혁명 및 관련 역사적 흐름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였다.⁵⁾ 가장 최근의 검

2) 박맹수, 1991, 「동학과 동학농민전쟁 연구동향과 과제」, 『박성수교수 화갑기념논총』, 백산박성수교수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3) 이현희, 2006, 「대한민국에서의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현황과 특성」,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4) 이와 관련된 배항섭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배항섭, 2013, 「동학농민전쟁의 사상적 기반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 동학(사상)과 농민전쟁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람』 45, 수선사학회; 2015, 「『동학사』의 제1차 동학농민전쟁 전개과정에 대한 서술 내용분석」, 『한국사연구』 170, 한국사연구회; 2015,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내재적 접근」, 『역사비평』 110, 역사비평사)

토로 김현주의 연구는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근대 사회운동사 연구의 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 연구사를 검토하였다. 특히 앞선 연구사 검토에서도 일부 지적한 과학적인 한국 역사의 발전상과 그에 따른 근대성 논쟁, '새로운 민중사' 등 동학농민혁명 연구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근대사의 방법론적 현안을 면밀히 검토했다.⁶⁾

그 밖에도 해외 학계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사례가 있으며⁷⁾,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세부 분야와 지역 사례에 대한 연구 현황을 다룬 저작들이 발간되었다.⁸⁾

그동안 진행되어온 동학농민혁명 연구사 정리는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해당 주제는 시대구분론이나 정치, 사회, 문화 등 포괄적인 분야가 아닌 매우 특정한 사건을 다루지만, 수십 년간 학계 내외로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최근 10년 동안에는 무려 670건의 학술논문이 발행되었다. 따라서 개별 연구자가 수십 년의 연구사와 최근 발행된 수백 건의 연구 흐름을 집대성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⁹⁾ 또한, 근래의

-
- 5) 배항섭, 위의 논문, 150쪽. 한편 배항섭은 동학농민 '혁명'이라는 용어가 서구 역사에서 일어난 '혁명'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학농민전쟁 (Donghak Peasant War)"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6) 김현주, 2022, 「근대전환기 사회운동사 연구의 현황과 제언 -동학농민전쟁과 의병운동을 중심으로-」, 『사총』 107,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 7) 해외 학계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배항섭, 2007, 「최근 북한학계의 동학농민전쟁 연구동향과 특징」, 『민족문화연구』 4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강효숙, 2014,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한일 학계의 연구동향 -훗카이도 대학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두개골 발견 이후 연구를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26,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유바다, 2019, 「최근 북한의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연구 현황」, 『역사연구』 36, 역사학연구소; 한편 『동학학보』 13호에는 각국의 연구 동향을 주제로 특집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 8) 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왕현중, 2013, 「1893년 보은집회 연구의 쟁점과 과제 -주도층과 이념의 이중 교차」, 『동학학보』 28, 동학학회; 신진희, 2014, 「동학농민혁명 지역별 사례 연구의 성과와 전망」, 『역사연구』 27, 역사학연구소 등)
 - 9) 관련 내용은 III장 1절에 상술하였다.

근대사 연구는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기존 방식으로 거대한 담론을 찾는 것도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연구사 정리에 수학적·통계적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수치화된 데이터와 분석을 활용한 정량적 접근의 필요성을 느꼈다.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방대해질수록 양적 경향성은 연구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역사학계에서는 여전히 질적 분석이 주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최근 『역사학보』의 〈회고와 전망〉 등에서 양적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¹⁰⁾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데이터로 간주하고,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계량정보학적 방법론을 접목하고자 한다.¹¹⁾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에 수집된 국내 ‘동학농민혁명’ 관련 논문의 서지정보를 분석하여 연구 동향과 국내 학계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과정, 그리고 디지털인문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 동향 분석 과정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2,000건 이상의 서지정보를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0) 김보광은 2019~2020년의 고려시대사 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에서 2년간 발행된 약 720편의 논문의 연구 동향 분석 및 전망 파악에 ‘키워드 빈도수 분석’ 및 ‘시각화’ 등 디지털인문학 기법을 시론적으로 적용한 바 있다.(김보광, 2021, 「고려 고려시대 연구의 2019~2020년 동향과 특징 -양적 분석과 키워드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51, 역사학회)

11) 역사학계에서 계량정보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대표적 사례는 다음을 들 수 있다.(허수, 2008, 「『개벽』의 ‘表象空間’에 나타난 매체적 성격 -표지 및 목차 분석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식민지기 ‘집합적 주체’에 관한 개념사적 접근 -『동아일보』 기사제목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4-1, 역사문제연구소)

I. 분석 방법

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이 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사료(史料)아카이브’(이하 사료 아카이브)의 ‘연구논저목록’을 데이터 수집에 활용하였다.¹²⁾ ‘서지정보 내보내기’ 및 ‘원문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RISS나 KCI 등의 논문 DB를 활용하는 것도 데이터 수집 방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유관 키워드를 선정하고 검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보다,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와 같이 전문적으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한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것이 수집 데이터의 엄밀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 아카이브의 연구논저 목록 중 연구 동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학술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는 웹 스크래핑을 활용하였다. 사료 아카이브 접속일을 기준으로, 사료 아카이브 연구논저 목록에는 5,093건의 연구논저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다.¹³⁾ ‘파이썬(Python)’의 라이브러리 ‘Beautifulsoup’으로 사료 아카이브 홈페이지의 연구논저 목록에 있는 HTML¹⁴⁾ 요소 중 필요한 데이터를 파싱하고 수집과정을 자동화하였

12) 사료 아카이브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만든 종합지식정보시스템으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주요 문헌자료와 국역총서, 연표 및 일지 등이 종합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 홈페이지(<https://e-donghak.or.kr/archive/>), 2024. 4. 7.

13)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2022년 이후 발행된 논문 중 누락 자료를 일부 발견하여 정확도 확보 차원에서 2021년까지 발행된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14) HTML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웹사이트의 구조와 내용을 정의하는 마크업 언어다. 예를 들면, 네이버 포털 홈페이지에 있는 네이버 마크나 검색 입력창, 검색 버튼 등 모든 웹 공간의 ‘요소’를 정의하는데 사용된다.(두피디아, 「HTML」, https://www.doopedia.co.kr/mo/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2&MAS_IDX=101013000712545, 2024. 6. 7.)

다. 이 과정을 통해 단행본, 학위논문, 외국논문을 제외하고 ‘일반논문’으로 분류된 서지정보 데이터 3,536건을 1차적으로 선별하였다. 이어 일반논문 중에서도 국내 학계에 발표된 학술논문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제 과정을 거쳤다.

먼저, 『한국사론』이나 『신편한국사』와 같은 전집 혹은 단행본, 연구총서에 수록되었으나 일반논문으로 분류된 자료를 제외하였다.¹⁵⁾ 또한, 일반논문으로 분류된 학위논문과 발표문, 토론문을 제거하였다. 국내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북한 학계의 논문도 제외하였다.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나 사료 탁본이나 주석 등 부록 자료나 서평도 제거하였다. 사료 아카이브에 수집된 자료 중, 과거 연구 윤리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아 동일 저자가 유사한 제목과 목차로 게재한 중복 논문도 제거하였다. 이러한 정제 과정을 통해 1955년부터 2021년까지 발행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국내 학술논문 2,133건의 서지정보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확보하였다.

이후, 서지정보를 국문으로 통일하였다. 이는 과거 발간된 논문이 한자로 작성된 경우가 있어, 형태소 분석 및 빈도 분석 과정에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한글 변환에는 한자-한글 변환 파이썬 코드를 사용하였다.¹⁶⁾ 검수 과정에서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거나 복수의 음을 가지고 있는 한자 중 잘못된 인식을 직접 찾아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글로 통일된 제목 데이터를 바탕으로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여 명사 키워드를 수집하였다. 형태소 분석은 문장이나 어절 형태의 텍스트 데이터를 형태소 단위로 분리하여 단어의 빈도수나 인접 단어 간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텍스트 마이닝의 데이터 정제

15)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3, 『한국사』 17,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8, 『한국사론』 5,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2, 『신편한국사』 39, 국사편찬위원회.

16) https://github.com/masoris/hanja_hangul

과정에서 사용된다. 형태소 분석기는 학습 데이터나 품사 태깅 정보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도와 속도 면에서 우수하며, ‘사용자 사전 추가’¹⁷⁾가 가능한 ‘mecab-ko’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였다.¹⁸⁾

1차 형태소 분석 결과, ‘동학농민혁명’이나 ‘갑오동란’과 같은 용어가 각각 ‘동학’, ‘농민’, ‘혁명’ 혹은 ‘갑오’, ‘동란’으로 분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건이나 역사 용어 중 인식되지 않은 단어들을 조사하여 사용자 사전에 등록하였다. 또한, ‘최해월’이나 ‘해월’처럼 성과 호로 사용되어 ‘인명(person)’으로 인식되지 않는 사례들을 수집하여 사용자 사전에 추가하였다.¹⁹⁾

그러나 등록된 단어 수가 120개를 초과하면서 새로운 단어가 사용자 사전에 등록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인명, 동학농민혁명 관련 용어, 기타 역사 용어를 중심으로 사용자 사전에 등록한 후 형태소 분석을 재실행하였다. 이후 분석 결과를 전수 검토하고 수정 작업을 거쳐 제목 키워드 데이터의 전처리를 최종 완료하였다.

17) ‘사용자 사전’에 단어를 입력하는 것은 형태소 분석기의 학습 데이터와 실제 입력 텍스트의 특성 차이로 발생하는 정확도 문제를 보완해준다.

18) <https://github.com/hephaex/mecab-ko>. 한편 ‘mecab-ko’에서 일부 지원하는 개체명 인식도 전처리에 활용하여 ‘인명(person)’과 ‘지역(place)’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활용하였다.

19) 그 밖에도 ‘해월 최시형’과 ‘최시형’은 동일한 인물이지만, 전자의 경우 ‘해월’과 ‘최시형’으로 빈도수가 중복 집계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키워드 태깅 시 ‘이름’으로 일괄 통일하여 기재하였다. 갑오개혁과 같은 사건 명칭을 제외하고 갑오년이나 1894년과 같은 다양한 시간 표현도 숫자로 통일하였다. 청일전쟁과 청·일전쟁과 같이 동일한 의미이지만, 기호나 표현 방식에 따라 별개의 용어로 집계되는 사례는 ‘한글’로 통일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반대 사례로 동학농민혁명이나 동학농민혁명운동과 같이 동일한 사건이지만 다른 개념을 지닌 용어들은 그대로 두었다.

1. 번호	2. 저자
3. 발행연도	4. 논저제목
5. 게재지	5. 게재지(숫자제외)
6. 게재학회	7. 주제(상위분류)
8. 주제(하위분류)	9. 제목 키워드 데이터

〈그림 1〉 동학농민혁명 관련 논문 서지정보 분석 데이터 양식

한편, 제목 데이터에서 인물 대상 연구와 지역 사례 연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명(person)’과 ‘장소(place)’ 키워드를 수집하였다. 앞서 사용자 사전에 인명을 등록하여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인명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 분리되지 않은 단어들을 추가로 기재하여 데이터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후 『해월신사법설』이나 『의암성사법설』, ‘예수바우골’ 처럼 서적명이나 지명을 인명으로 잘못 인식한 데이터를 제거하여 총 186건의 인물 대상 연구를 확인하였다. 장소(지역) 데이터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집하여 총 313건의 연구 대상 지역 데이터를 확인하였다.²⁰⁾ 이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완료하였다.²¹⁾

2. 연구 동향 분석 방법

기존 역사학계에서 ‘연구사 정리’는 연구논저의 발행 횟수를 주제 및 분야별로 양적 비교하여 활성화 정도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논문의 실제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의 주요 내용과 결론,

20) 해당 데이터는 추가적인 전처리 작업을 거쳐 별도의 CSV 파일로 제작하였다. 해당 파일은 주 21의 링크에 분석별로 별도의 폴더로 정리하여 업로드하였다.

21) 이 글은 프로그래밍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파이썬 기반의 ‘Jupyter Notebook’과 협업에 최적화된 Google Colaboratory를 활용하였으며, 시각화를 위하여 ‘Wordcloud’ 라이브러리와 ‘Plotly’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코드와 데이터, 시각화 파일은 다음의 링크에 첨부하였다.(<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GusjHPayXj6XCwNnLjKszZ0m-WGqijFg?usp=sharing>)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관련 분야의 논의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소개하여, 독자가 직접 논저를 읽지 않더라도 연구 동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사 정리’ 방식은 연구자의 역량과는 별개로, 연구 대상과 범위 설정에 있어 주관적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서술자의 권위에 의해 텍스트의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한계도 내포한다.

이 글은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지학 연구와 디지털인문학에서 활용되는 계량정보학(Informetrics)을 적용하였다. 계량정보학은 수학적, 통계적 방법론에 기반하여 문헌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과 편향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동향 분석’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²²⁾

이 글은 관련 논문의 서지정보를 토대로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²³⁾ 먼저, 연도별 논문 발간 횟수를 살펴봄에 연구가 활성화된 시기와 그 배경을 탐색할 것이다. 또한, 연구 활동이 활발한 연구자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를 분석하여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확인할 것이다. 수집된 논문 제목을 형태소로 분석하고, 명사 키워드의

22) 인문학 분야에서 계량정보학을 통해 ‘연구 동향 분석’을 진행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김병준·천정환, 2020, 「박사학위 논문(2000~2019)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변화와 전망」, 『상허학보』 60, 상허학회; 남재우·장인철, 2024, 「최근 10년간(2014~2023) 《영어학》 연구 동향 분석: 계량정보학적 접근」, 『영어학』 24, 한국영어학회)

23) 구체적 흐름을 파악할 때는 사료 아카이브에서 ‘동학사상(천도교) 일반 연구’로 분류한 연구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동학사상(천도교) 일반 연구’에는 동학농민혁명 연구라고 분류하기에는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상당수의 데이터가 존재한다. <그림 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동학사상(천도교) 일반’ 연구가 다른 모든 주제 연구 건수의 총합과 거의 동등한 수치라는 점에서 데이터 왜곡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다행인 점은 사료 아카이브에서 분류한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사상-종교적 배경’ 연구로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동학사상의 논의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발행 추이, 주제별 발행 횟수 분석 외의 세부 경향 파악에는 ‘동학사상(천도교) 일반’ 연구 데이터를 배제하였다.

추출과 시기별 주요 연구주제 분석을 통하여 빈도수를 분석하며,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연구 현황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할 것이다. 한편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 사례 연구와 인물 연구의 연구 주제 변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규모 연구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이 글에서는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는 대다수의 연구 동향 분석 논문과 달리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을 사용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토픽모델링은 단어 간 연결 및 동시 출현을 기반으로 텍스트 데이터에서 의미나 특성을 공유하는 어휘 군집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대량의 텍스트에서 주제 군집과 키워드를 파악하고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경향성을 추론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료 아카이브’의 연구논문저목록 데이터에는 이미 ‘세부분류’ 항목으로 연구 주제가 분류되어 있었다. 따라서 토픽모델링을 사용하지 않고도, 전문 연구자들이 수작업으로 구축한 서지정보를 활용하여 연구 경향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²⁴⁾

II.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경향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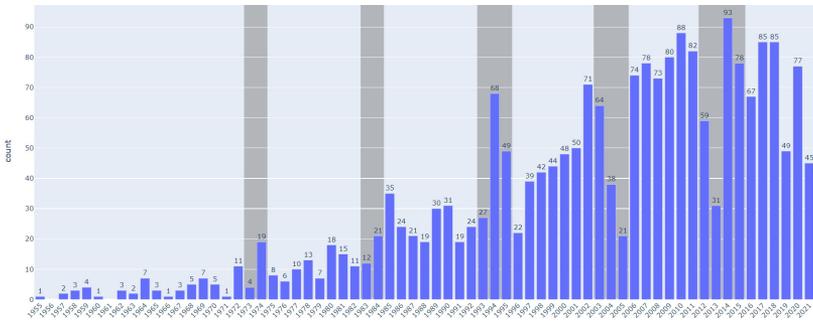
1. 발행 정보 추이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에 등록된 연구논문 목록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관련 논문은 1955년 김용섭의 「朝鮮時代 農民의 存在形態」²⁵⁾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2,133건이 발행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

24) 토픽모델링을 연구 동향 분석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김병준·천정환, 2020, 앞의 논문; 정유경, 2020, 「디지털인문학 분야의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7-2, 한국정보관리학회)

25) 김용섭, 1955, 「朝鮮時代 農民의 存在形態」, 『사충』 1,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협회가 결성되었고, 정부 주도로 정읍 황토현에 기념탑 건립이 추진되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동학농민혁명이 가진 주체적인 민족성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뒷받침으로서 동학을 선양하였다. 특히 천도교는 분단 이후 남한에서 교세가 위축되면서 동학의 역사성을 이용하여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그들의 입지를 살리려고 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²⁶⁾ 이 시기에 논문 발행도 본격화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연구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러 더욱 확산되었다. 유신정권과 민주화운동 등 당시 사회적 상황을 바탕으로 근대화 및 근대성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변혁의 결정적 동인으로 주목받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연구자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기에 전봉준 고택을 비롯한 동학농민혁명 유적들이 정비된 점도 주목할 만한 상황이다.²⁷⁾



〈그림 2〉 논문 발행 추이(단위 : 논문 발행 횟수)

이후 논문 발행 추이는 일정 기간 유지되다가 일부 등락을 반복하였

26) 최광승, 2024, 「박정희 정권은 어떻게 동학과 천도교를 활용했는가」, 『한국학』 47-1, 한국학중앙연구원.

27) 이진영, 2001, 「동학농민혁명 인식의 변화와 과제」, 『동학연구』 9·10, 한국동학학회, 84쪽.

으나,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00주년 기념사업의 연장선상에서 1998년 ‘동학학회’가 창립되었고, 2004년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2000년대 초반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특별법 제정 직후 2년 동안 논문 발간 횟수는 급감하였지만, 평균적으로 이전의 추세를 회복하였다. 2014년에는 동학농민혁명 발발 120주년을 맞아 역대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연간 약 80건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최근 들어 그 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기념 10년을 주기로 연구 활동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04년과 2005년에 논문 발행이 급감한 점은 이례적이다. 이는 2002년과 2003년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학술대회가 많이 개최되어 논문 투고가 증가했으나, 특별법 제정 이후 학술대회 개최 횟수가 감소하면서 논문 발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06년에는 다시 본래의 상승 추세를 회복하였다.²⁸⁾

한편, 2004년 특별법 제정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설립, 2006년 동학농민혁명사 논저목록 정리를 통해 연구자에게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연구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²⁹⁾ 하지만 상승 추세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2019년과 2021년에 논문 발행 수가 감소한 점은 향후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70건 이상의 논문이 발간되었다는 사실은 동학농민혁명이 개항기 연구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

28) 이러한 점은 1990년~2012년까지 신문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발견된다.(박정민, 2024, 「동학농민혁명 상징공간 만석보 활용 방안」, 『국학연구』 54, 한국국학진흥원, 365쪽)

29) 동학농민혁명연구사논저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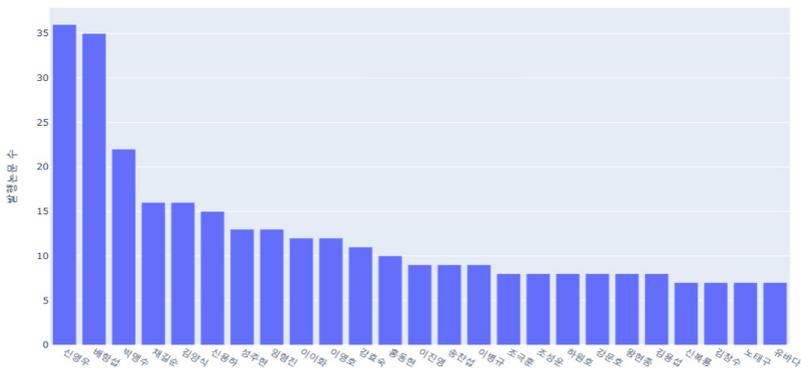
([https://db.history.go.kr/modern/level.do?levelId=prb_1\\$1rem](https://db.history.go.kr/modern/level.do?levelId=prb_1$1rem))

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이 되는 2024년을 전후하여 논문 발행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2. 주요 연구자 및 게재지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경향성과 흐름, 학문적 영향력과 지역 및 시대적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게재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방법론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먼저 논문 저자를 살펴보았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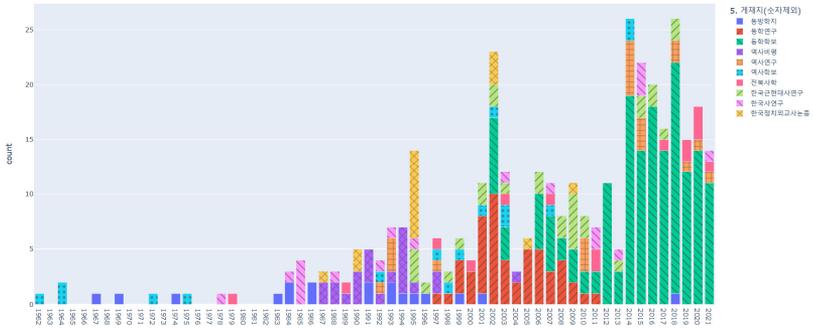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관련 논문을 가장 많이 발행한 개별 연구자는 신영우(36건), 배항섭(35건), 박맹수(22건), 김양식, 채길순(이상 16건), 신용하(15건), 성주현, 임형진(이상 13건), 이영호, 이이화(이상 12건), 강효숙(11건), 홍동현(10건), 송찬섭, 이병규, 이진영(이상 9건), 강문호, 김용섭, 왕현중, 조극훈, 조성운, 하원호(이상 8건), 김창수, 노태구, 신복룡, 유바다(이상 7건) 등이다.³¹⁾



〈그림 3〉 연구자 상위 25명 그래프

30) 해당 분석에는 사료 아카이브 ‘세부분류’ 기준에서 ‘동학사상 일반’에 속하는 연구 데이터를 제외하였다.

31) 1차적으로 발행건수를 기준으로, 동수는 가나다 순으로 나열하였다.



〈그림 4〉 동학농민혁명 관련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상위 10종

〈표 1〉 동학농민혁명 관련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상위 10종
(단위 : 논문 발행 횟수)

순위	학술지명	창간연도	연구분야	발행논문 수	동학농민혁명 관련 논문
1	동학학보	2000	역사학	515	166
2	동학연구	1996	기타인문학	119	52
3	한국근현대사연구	1959	역사학	679	30
4	역사비평	1986	역사학	1,123	23
5	역사연구	1992	역사학	258	21
6	한국사연구	1968	역사학	755	19
7	동방학지	1954	기타인문학	762	18
8	한국정치외교사논총	1985	정치외교학	373	16
8	역사학보	1952	역사학	1,027	16
10	전북사학	1977	역사학	370	15

다음으로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현황을 살펴보았다.³²⁾ 관련 연구 게재지는 총 390건으로, 그중 상위 10종에서 게재된 추이를 살펴보았다.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학술지는 『동학학보』

32) 해당 분석에는 사료 아카이브 ‘세부분류’ 기준에서 ‘동학사상 일반’에 속하는 연구 데이터를 제외하였다.

(166건)로 나타났다. 1998년 동학학회가 창립된 이후 2000년도부터 『동학학보』를 발간하며 동학농민혁명 연구 논문 발간에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동학연구』(52건)로, 한국동학학회에서 발간한 학술지이다. 한국동학학회는 1996년에 창설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중요한 연구 성과를 보였으나, 2011년 이후로는 활동이 중단되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많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각각 『한국근현대사연구』(30건)와 『역사비평』(23건)이다. 동학농민혁명이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는 만큼, 근현대사 연구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역사비평』은 창간 초기부터 동학농민혁명을 꾸준히 다루었으며,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아 특집호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다섯 번째로 많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역사연구』(21건)로, 1992년에 시작된 이 학술지는 2010년대에 들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논문을 자주 게재하였다. 2014년에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특집 논문으로 발행하였다.

그 뒤를 이어 『한국사연구』(19건), 『동방학지』(18건)가 상위에 나타났다. 『동방학지』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많은 논문이 투고되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 논문 발행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외교학 분야의 학술지인 『한국정치외교사논총』(16건)은 1987년에 창간되어 1995년에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아 정치사적 시각에서 쟁점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논문이 더 이상 게재되지 않았다. 그 외에 『역사학보』(16건)와 전북 지역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전북사학』(1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상위 10종의 학술지 중 최근까지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가 꾸준히 게재되고 있는 학술지는 『동학학보』, 『한국근현대사연구』, 『역사연구』, 『전북사학』이다. 이러한 학술지들은 동학이나 동학농민혁명 그 자

체를 다루거나, 특정 시대와 지역과의 연관성을 가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꾸준한 투고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다른 학술지들은 넓은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적은 발간 수를 보인다.

3. 주제 및 시기별 연구

‘사료 아카이브’에 수집된 관련 논문의 제목에 사용된 모든 명사 키워드를 빈도수로 분석하고 상위 30건을 <표 2>에 기재하였다.³³⁾ 단어의 출현 빈도에 따라 글자 크기를 표현하는 ‘워드클라우드<그림 5>’로 시각화하였다. 글자 크기가 클수록 논문 제목에 많이 사용된 키워드로 볼 수 있다.

<표 2> 논저제목 키워드 빈도수 상위 30건(단위 : 출현 빈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동학농민혁명	124	16	역사	40
2	지역	117	16	인식	40
3	동학	111	18	동학혁명	37
4	갑오개혁	94	19	성격	35
4	동학농민전쟁	94	20	19세기	33
6	청일전쟁	83	20	사회	33
7	일본	67	22	변화	32
8	사상	64	22	전봉준	32
9	1894년	61	24	운동	31
9	동학농민군	61	25	동학농민운동	28
11	한국	56	26	개혁	25
12	조선	53	26	교과서	25
13	활동	52	28	구한말	22
14	근대	49	28	민중	22
15	갑오농민전쟁	46	28	일본군	22

33) 해당 분석에는 사료 아카이브 ‘세부분류’ 기준에서 ‘동학사상 일반’에 속하는 연구 데이터를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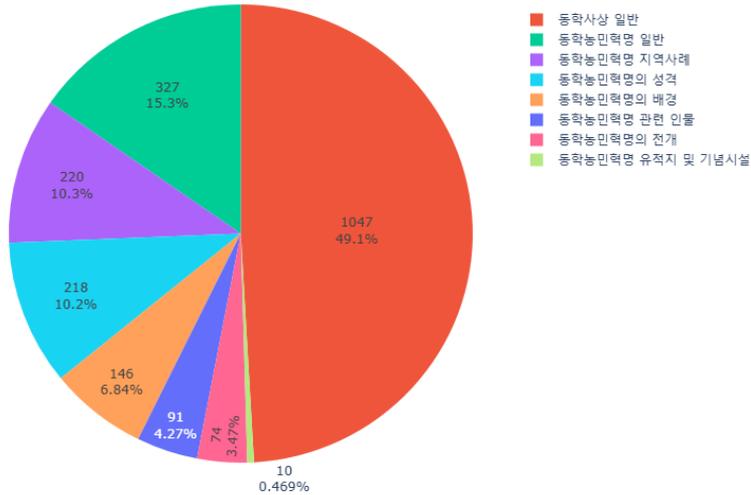
〈그림 5〉 전체 논저제목 키워드 빈도수 상위 100건 워드클라우드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는 ‘동학농민혁명(124회)’으로, 이는 연구 시기를 규정하거나 사건 자체를 지칭하는 용도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된 다른 표현으로는 ‘동학농민전쟁’(94회), ‘갑오농민전쟁’(46회), ‘동학혁명’(37회), ‘동학농민운동’(28회), ‘동학란’(13회), ‘동학운동’(6회), ‘동학혁명운동’(5회), ‘갑오동학혁명’(3회), ‘갑오혁명’(3회), ‘동학민중운동’(3회) 등이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용어는 ‘지역’(117회)으로,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에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갑오개혁’(94회)과 ‘청일전쟁’(83회)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생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들로 언급되었으며, 특히 ‘청일전쟁’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 반외세적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진 용어이다. ‘동학농민군’(61회)은 지역 내 활동 양상과 참여 인물을 다룬 연구뿐만 아니라 일본군 또는 향촌 지배층에 의한 진압 활동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전봉준’(32회)은 해당 인물의 전기적 연구, 혁명 사상 및 그의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교과서’(25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근현대사 서술에 대한 분석에서 사용되었으며, 한국, 일본, 중국의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의 서술을 비교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또한, 갑오개혁 시기에 제작된 교과서의 교육과정을 연구한 논문도 확인할 수 있다.³⁴⁾ ‘일본군’(22회)은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경복궁 점령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일본의 조선 간섭을 일본 사료를 통해 연구한 논문들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그림 6〉 주제별 논문 발행 원그래프

다음으로 연구 주제별로 논문 발행 횟수를 분석하였다.³⁵⁾ 2,133건의 논문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진 분야는 ‘동학사상과 관련된 연구’(동학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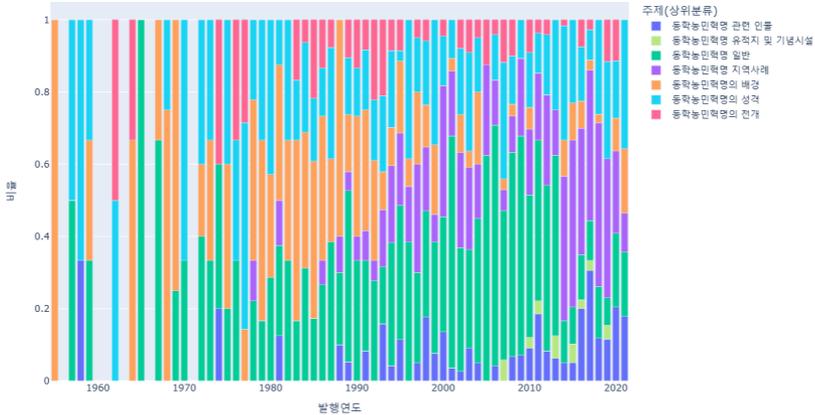
34) 논문 데이터 2,133건 중 해당 논문은 다음과 같다.(박승배, 2011, 「갑오개혁기 교과서에 나타난 교육과정학적 이념 연구: “소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9-3, 한국교육과정학회; 2012, 「갑오개혁기 학부 편찬 교과서 저자가 활용한 문헌 고증」, 『교육과정연구』 30-3, 한국교육과정학회; 2013, 「갑오개혁기 학부 편찬 교과서 편찬자가 활용한 문헌고증 2: 국민소학독본과 신정심상소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1-3, 한국교육과정학회)

35) 주제 분류에는 ‘사료 아카이브’의 ‘세부분류’ 기준을 활용하였다.

일반)였다. 총 1,047건의 논문이 발행되었으며, 전체 논문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한다. 동학사상 일반 연구는 ‘동학종교(천도교)’(1,021건), ‘동학조직’(14건), ‘교조신원운동’(12건)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동학사상과 관련된 연구는 동학농민혁명 배경과 관련된 연구의 하위 분류로 종교나 사상적 배경으로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사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 주제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반적인 연구 주제(동학농민혁명 일반, 327건)였다. 그 뒤를 이은 연구 주제는 동학농민혁명의 지역 사례 연구(220건)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에 관한 연구(218건),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에 관한 연구(146건), 동학농민혁명 관련 인물 연구(91건),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74건),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에 관한 연구(10건)가 뒤를 이었다.

주제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두 번째로 많이 발행된 동학농민혁명 일반 연구(327건)에서는 ‘청일전쟁’(121건), ‘갑오개혁’(117건), ‘동학농민혁명 전반’(89건)을 주제로 한 논문이 주로 발행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에 관한 연구(146건)는 사상·종교적 배경(59건), 사회·경제적 배경(50건), 농민항쟁 연구(36건)로 세분화되었다. 특히 사상·종교적 배경 연구는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와 최시형, 동학농민혁명과 동학사상 간의 관련성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또한 당대의 사회 상황과 문화 등을 통해 나타난 동학사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74건)는 2차 동학농민혁명(33건), 집강소(22건), 1차 동학농민혁명(12건), 고부농민봉기(7건)와 같은 세부 주제로 진행되었다.



〈그림 7〉 시기별 연구 주제 발행 비중 막대 그래프(사상 연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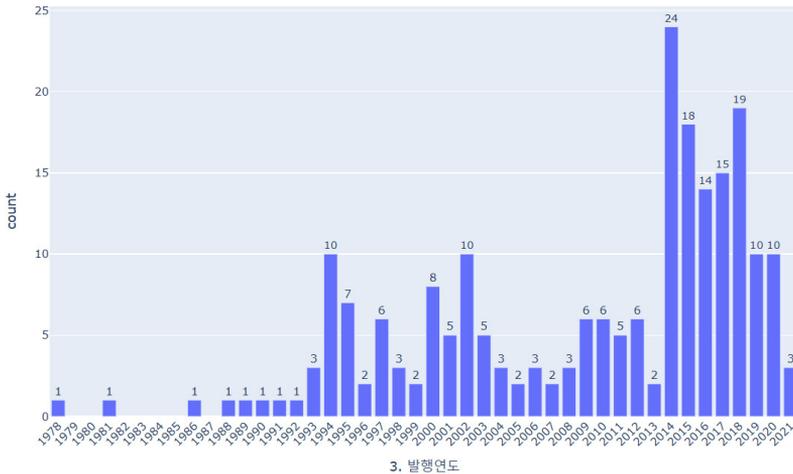
연구 주제의 시기별 현황을 분석하면 다양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전후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4년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으로, 두갑자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전국 각지와 학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역대 가장 많은 논문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청일전쟁’, ‘갑오개혁’, ‘동학농민혁명 전반’이 속한 ‘동학농민혁명 일반’ 주제 연구의 비율은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후 일반 주제 연구의 발행 횟수는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상당한 감소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 계속된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Ⅲ. 새로운 연구 동향과 변화

1. 지역 사례 연구의 증가

II장을 통해 다양한 동학농민혁명 연구 경향을 파악하였다. 1990년

대에 연구가 크게 증가한 이후, 연구 주제의 다변화 양상을 감지할 수 있다. III장에서는 지역과 인물 대상 연구 빈도의 구체적인 추이와 기타 연구 양상을 정리하고 동학농민혁명 연구 주제의 변화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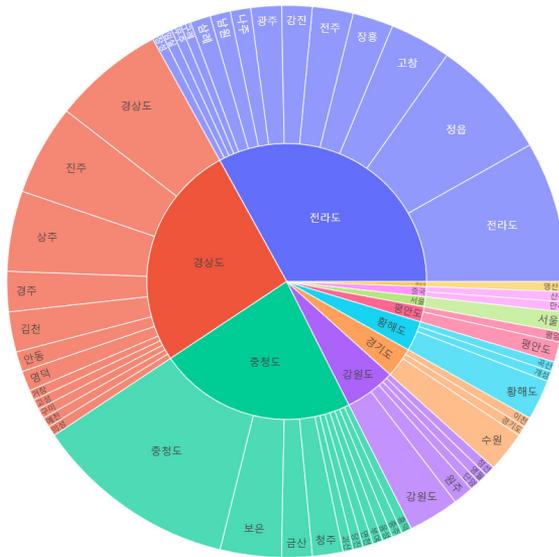


〈그림 8〉 지역 사례 연구 빈도 그래프(단위 : 논문 발행 횟수)

먼저 ‘동학농민혁명 지역 사례 연구’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에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사상 연구를 제외하고,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동학농민혁명에서 지역 사례 연구의 가치는 단순히 연구의 시선과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1894년에 발생한 사건들의 무대를 설정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역 사례 연구는 주로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에서 다뤄진 313건의 지역 데이터 중 전라도가 10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충청도 68건, 경상도 74건 순으로 나타났다.³⁶⁾

초기 동학농민혁명 연구는 주로 동학농민혁명의 배경, 성격, 일반적 주제에 집중되었고, 동학의 발상지인 경상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4년 이후 경상도 영해(현재 경상북도 영덕)에서 1871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동학농민혁명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 개최와 『학초전』, 『김산소모사실』, 『창계실기』 등의 새로운 사료가 발굴되었다.³⁷⁾ 이 역시 경상도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 주제를 다양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2014년 이전 지역 사례 연구 대상 지역 원그래프

36) 해당 수치는 사료아카이브의 분류기준이 아니라, I 장 1절에 상술한 대로 논문 제목에서 지역명을 추가적으로 추출한 데이터이다.

37) 신진희, 2014, 앞의 논문.

전라도는 정읍(고부, 황토현, 태인), 고창(무장), 전주 등 동학농민혁명의 주 무대로서 고부민란, 황토현 전투, 우금치 전투³⁸⁾ 등의 사건과 전봉준, 김개남 등의 인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2010년대 중반에 들어 지자체의 학술대회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남원에서 ‘동학의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남원 동학농민혁명의 발자취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으며³⁹⁾, 전주에서는 ‘전주지역 정체성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열렸다.⁴⁰⁾ 두 지역 모두 동학농민혁명의 두갑자를 기념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진행했으며, 지자체에서 꾸준히 학술대회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전라북도 남원과 전주 지역에 대한 연구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전라남도도 전라북도 전역을 아우르며 다양한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모습을 탐구하는 연구가 다수 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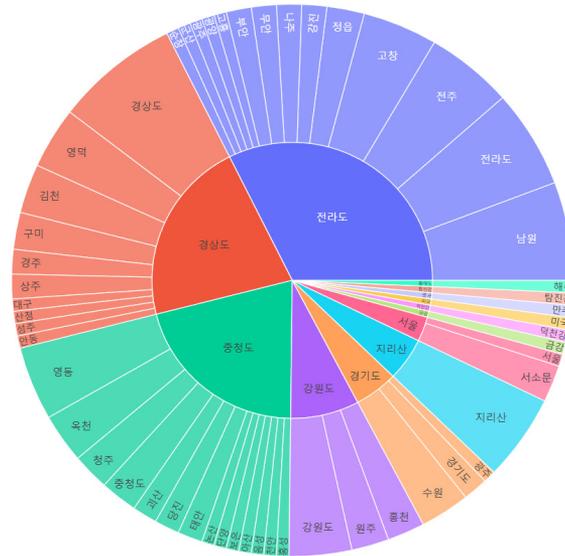
충청도는 2014년 이전까지 보은집회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시기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로 충청 중남부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차 봉기 시기에도 홍성, 당진, 태안 등 내포 지역에서 농민군이 활동했던 사실이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그림 9>와 <그림 10>을 비교하면 2014년 이후 충청도 지역 사례 연구가 감소한 반면, 충청남도의 동학농민혁명 사례 연구가 적지 않게 증가한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향후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

38) 우금치는 충청도 공주에 있으나 주력부대가 전라도 농민임을 감안하여 전라도에 넣었다.

39) 전라일보, 「[남원] 동학농민혁명 2주갑(1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전라일보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496>), 2024.11.18.

40) 연합뉴스,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RPR20141215010300353>), 2024.11.18.

였던 전라도와 인접 지역인 충청 서남부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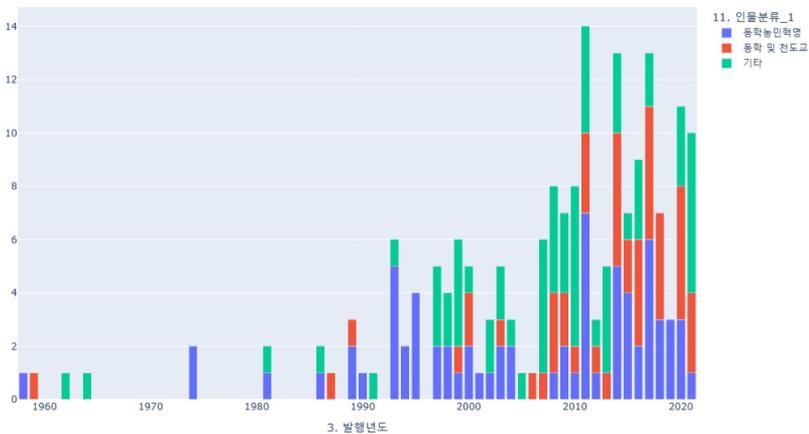
〈그림 10〉 2014년 이후 지역 사례 연구 대상 지역 원그래프

그 밖에 강원도(21건), 경기도(12건) 등 다양한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강원도에서는 2015년에 동학학회 주관으로 “동학의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강원도 홍천의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⁴¹⁾ 2016년에는 경기도 지역을 다룬 동학농민혁명 사료인 『갑오군정실기』를 중심으로 학술대회가 개최되면서 연구 지역이 확대되었다.

41) 기획감사실, 「홍천에서 동학농민혁명 제 121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홍천군 (https://www.hongcheon.go.kr/www/selectEminwonNewsView.do?pageUnit=10&pageIndex=1079&searchCnd=all&key=283&news_epct_no=5157&ofr_pageSize=10), 2024.06.08.

2. 다양한 연구 주제로 확산

연구 주제의 변화는 지역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인물을 다룬 연구(이하 인물 연구) 추이도 주목할 만하다.⁴²⁾ 인물 연구는 1958년 김용섭의 『전봉준 공초의 분석-동학란의 성격 일반』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186건이 진행되었다.⁴³⁾ 시기별 발행 추이를 고려하면, 1960~1970년대에는 인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인물 연구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 시기부터 인물 연구가 활발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에 인물 대상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된 이후 2014년과 2019년에 일부 활성화되었으나 점차 감소 추세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분류별 인물 연구 빈도수 그래프

42) 해당 분석은 동학사상 일반 관련 연구 데이터를 제외하고 진행하였다.

43) 단, 인물 연구 현황 분석 시 활용한 186건은 사료 아카이브 분류 기준이 아니라 제목에서 인명이 있는 논문을 추출하여 찾은 데이터다. 발행 건수를 제목에 기재된 인명의 수로 파악하였다.

인물 연구는 성격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인물, 동학 및 천도교 인물, 기타 인물로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분석 결과, 동학농민혁명 인물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그 뒤를 기타 인물, 동학 및 천도교 인물이 이었다. 가장 많이 연구된 인물은 전봉준(29건), 최시형(14건), 최제우(12건), 손병희(8건), 김개남(7건)으로, 대중들에게도 익숙한 인물들이 주요 연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학농민혁명 인물 연구는 1980년대 초반까지 주로 전봉준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이는 1960~1980년대 동학농민혁명 연구가 주로 사건의 배경이나 성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혁명의 핵심 인물인 전봉준이 주요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993년 이후 김개남, 서장옥, 이현표 등 이전에 다뤄지지 않은 각 지역의 동학농민군 인물들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인물 연구의 관심이 지역 사례와 주변 인물들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전라도와 충청도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인물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동학농민혁명 인물 연구는 2011년에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외에도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한 관군이나 일본군에 관한 연구도 존재한다.

동학 및 천도교 인물은 동학농민혁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종교·사상 인물들로, 이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기타 인물에는 주로 소설가, 철학자, 정치가 등이 포함되며, 상당수가 해외 인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들은 개별 인물로 연구되기보다는 동학농민혁명 인물과 연관하여 연구되는 경우가 많다.

그 밖에도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에 관한 논의 역시 주요 연구 분야 중 하나였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정립하고, 용어의 명명에 관한 주요 연구로 다루어졌으며, 향후에도 중요한 연구 분야로 전망된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 대한 연구는 초기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후반 이후로는 동학

농민혁명 유적지와 기념시설에 대한 연구가 미약하게나마 시작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1990년대를 기점으로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에 대한 연구가 감소한 경향도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의 원인, 전개, 목표, 역사적 배경 등 사건 자체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 경향이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관심의 감소라기보다는 근대사 연구 기조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수차례 지적한 것처럼 전통적인 개항기 연구는 근대화의 토대와 변혁의 주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변혁과 민족운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⁴⁴⁾ 이러한 기조는 한국역사학계의 질적 성장에 따라 기존 한국 개항기의 과학적인 역사상이 과연 역사적 실체 복원에 합당한지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배경 관련 연구’ 비중의 변화는 학계 기조의 전환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는 시각적 지표로 볼 수 있다. 초기 연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배경 관련 연구(〈그림 7〉 주황색 막대)’⁴⁵⁾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 급격히 줄어들었다. 해당 비중의 변화는 ‘지역 사례 연구(〈그림 7〉 보라색 막대)’와 ‘관련 인물 연구(〈그림 7〉 파란색 막대)’ 비중의 확대와 교차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에서 놓친 인물, 지역, 사건 등 구체적 사례를 기반으로 근대사의 상을 재구하는 경향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연구 경향은 보다 미시적이고 지역적인 연구에 집중되고 있다.⁴⁶⁾

44) 노관범, 2022, 「한국 근대 I ‘조선과 세계’라는 복합 공간과 ‘전통과 근대’라는 복합 시간」, 『역사학보』 255, 역사학회, 20쪽.

45) 사료 아카이브의 ‘세부분류’ 기준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으로 분류된 연구를 지칭한다.

46) 민회수, 2018, 「근대 I ‘익숙함’에 대한 색다른, 그리고 미시적인 접근」, 『역사학보』 239, 역사학회.

또한 지역학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단체의 지원 증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역학이 과거를 정립하여 지역 주민에게 정체성과 특수성을 부여하고, 지역 현안을 돌파하는 학술작업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는 각 지자체의 지역학 정립에 적절한 학술적 과제로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관심은 유관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학술대회 개최 증가로 이어졌다. 2014년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와 유관단체, 동학학회의 긴밀한 협력하에 많은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1차 봉기의 주요 지역이었던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라는 개념을 지역 정체성으로 제시하고 있다.⁴⁷⁾ 전주, 남원, 경주, 홍천 등 다양한 지역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등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관심이 연구 논저의 발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종합하여 볼 때, 2014년 이후 비중이 급증한 ‘지역 사례 연구(〈그림 7〉 보라색 막대)’가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현재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지역학’의 수요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보인다.

지역 사례 연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은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 전라도는 주로 전라북도에, 경상도는 상주, 김천, 경주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들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연구가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1894년 동학의 사상과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사회 변혁을 목적으로 한 ‘혁명’이었다면, 연구의 지리적 범위가 보다 넓어져야 할 필요성도 있다.

47) 아시아경제, 「민선 5기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성과 거뒀」,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11413533974006>), 2024.06.07.

다행스럽게도 2014년 이후 남원, 당진, 태안, 대구, 구미, 덕천강, 탐진강 등 새로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비록 이러한 연구의 수는 아직 적고, 연속적인 논의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연구 지역의 확장은 주목할 만한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지역 사례 연구’가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연구 지역의 확장과 더불어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맺음말

본 연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 아카이브’에 수집된 논문을 바탕으로 지난 70년간 동학농민혁명 연구 성과를 계량정보학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 변곡점을 탐색하고, 연구사적 동향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 연구는 10년 주기의 기념행사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 특히 1994년 100주년과 2014년 두갑자를 기점으로 연구의 흐름에 변화가 있었고, 그 기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70편의 논문이 발간된 것은 동학농민혁명 연구가 여전히 중요한 학술 주제임을 보여주지만, 향후 그 위상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연 1회 개최하는 ‘신진연구자워크숍’과 같이 새로운 연구자의 진입을 촉진하는 다양한 학술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연구 주제의 변화는 한국 개항기 연구의 경향성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초기 연구는 사회 변동과 변혁의 주체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근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재평가되었다. 한국사에 구조적인 역사상을 상정하

는 경향이 과연 실체도 그러한가라는 의문 속에서 지역 및 미시적 접근으로 전환된 것이다. 1990년대부터 ‘지역 사례 연구’ 논문 발행이 확산되는 점은 경향성 전환의 실증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을 다룬 연구의 비중은 두갑자였던 2014년을 기점으로 더욱더 커졌으며, 현재까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로 전라북도와 경상도(상주, 김천, 경주 등) 지역이 연구되었으나, 지역학의 수요에 따른 지자체의 지원과 향후 사료 발굴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지역이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다양한 지역적 맥락과 역동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중심의 미시적 연구는 거시적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다양한 역사적 요소를 밝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연구의 파편화와 담론 부재의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연구 과정에서는 거시적 맥락과 유기적 소통을 통해 선행연구의 문제의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프로그래밍 기반의 연구 동향 분석은 기존의 질적 분석 방식과 비교했을 때, 연구자가 느끼는 현장감과 언어·사고적 공유 내용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 분석의 도입은 한국사 연구의 외연 확장과 연구 지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인문학적 방법론이 역사 서술의 단선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전통적인 해석 방식과 결합된다면 새로운 의미와 맥락을 찾아낼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료 아카이브’를 활용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아카이브의 연구논저 항목에서 논문 목록을 ‘날짜순’, ‘등록순’, ‘정확도순’ 등으로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 사용자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다. 둘째, 한자 사료를 한글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東鶴思想’이라는 제목의 논저가 있을 때, 현 시스템에서는 ‘동학사상’을 검색창에 입력해도 해당 논문이 검색되지 않는다. 다른 데이터베이스

(RISS,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등)에서는 한글로 제목을 입력해도 한자 제목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셋째, 자료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수정일 기재가 필요하다. 아카이브를 활용하며 2022년까지의 연구논저가 데이터로 수집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누락된 동년 자료를 발견하여 분석 대상을 2021년까지 발행된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넷째, 사료 아카이브 자료 공유 방식의 확장을 제안한다. RISS에서 소장 자료의 서지정보를 다양한 형식으로 출력하도록 서비스(서지정보 내보내기)를 제공하는 것처럼 웹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제공하는 텍스트 데이터와 함께 프로그래밍에 적합한 CSV나 XML 형식의 데이터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⁴⁸⁾ 더 나아가 사료 아카이브에 소장된 대량의 역사 자료를 데이터로 전처리하고 분석 및 시각화하는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기본적인 인포그래픽 파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3.1운동 아카이브⁴⁹⁾나 ‘지암일기’ 아카이브⁵⁰⁾, 대항해시대 노예무역 DB(SlaveVoyageDB)⁵¹⁾와 같이 데이터나 시각화 자료를 인터랙티브(interactive)하게 다룰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 아카이빙의 활용성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 아카이브에 축적된 대규모 논문 정보를 활용하여 데이터 전처리 시간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다. 대규모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불가피하지만, 재

48)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대부분 ‘조선왕조실록DB 홈페이지(<https://sillok.history.go.kr/>)’에서 텍스트 형식으로 활용하지만,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https://www.data.go.kr/>)’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에 적합한 CSV나 XML 형식의 데이터로도 접근 가능하다.

49)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https://db.history.go.kr/samil/home/main/main.do>)

50) 지암일기 홈페이지(<https://jiamdiary.info>)

51) SlaveVoyages 홈페이지(<https://www.slavevoyages.org/>)

단 측에서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하여 사료 아카이브를 더욱 보편화하고, 세계기록유산으로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 2024. 9. 28. 심사완료일 : 2024. 11. 7. 게재확정일 : 2024. 11. 15.

참고문헌

〈전자자료〉

- 기획감사실, 「홍천에서 동학농민혁명 제 121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홍천군 (https://www.hongcheon.go.kr/www/selectEminwonNewsView.do?pageUnit=10&pageIndex=1079&searchCnd=all&key=283&news_epct_no=5157&ofr_pageSize=10), 2024.06.08.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https://www.law.go.kr/법령/동학농민혁명_참여자_등의_명예회복에_관한_특별법).
- 두피디아, 「HTML」, (https://www.doopedia.co.kr/mo/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2&MAS_IDX=101013000712545), 2024.6.7.
- 아시아경제, 「민선 5기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성과 거뒀」,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11413533974006>), 2024.06.07.
- 연합뉴스,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RPR20141215010300353>), 2024.11.18.
- 전라일보, 「[남원] 동학농민혁명 2주갑(1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전라일보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496>), 2024.11.18.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3, 『한국사』 17,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8, 『한국사론』 5,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2, 『신편한국사』 39, 국사편찬위원회.

〈논문〉

- 강효숙, 2014,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한일 학계의 연구동향 -홋카이도 대학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두개골 발견 이후 연구를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26,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301~325쪽.
- 김현주, 2022, 「근대전환기 사회운동사 연구의 현황과 제언 -동학농민전쟁과 의병운동을 중심으로-」, 『사총』 107,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51~86쪽.
- 김병준·천정환, 2020, 「박사학위 논문(2000~2019)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변화와 전망」, 『상허학보』 60, 상허학회, 443~517쪽.

- 김보광, 2021, 「고려 고려시대 연구의 2019~2020년 동향과 특징 -양적 분석과 키워드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51, 역사학회, 55~95쪽.
- 김용섭, 1955, 「朝鮮時代 農民의 存在形態」, 『사충』 1,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78~88쪽.
- 남재우·장인철, 2024, 「최근 10년간(2014~2023) 《영어학》 연구 동향 분석: 계량정보학적 접근」, 『영어학』 24, 한국영어학회, 348~374쪽.
- 노관범, 2022, 「한국 근대 I ‘조선과 세계’라는 복합 공간과 ‘전통과 근대’라는 복합 시간」, 『역사학보』 255, 역사학회, 19~46쪽.
- 박문현, 2008, 「동학의 생명사상」, 『민족사상』 2-2, 한국민족사상학회, 25~54쪽.
- 박승배, 2011, 「갑오개혁기 교과서에 나타난 교육과정학적 이념 연구: “소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9-3, 한국교육과정학회, 1~22쪽.
- 박정민, 2024, 「동학농민혁명 상징공간 만석보 활용 방안」, 『국학연구』 54, 한국국학진흥원, 351~389쪽.
- 배항섭, 2007, 「최근 북한학계의 동학농민전쟁 연구동향과 특징」, 『민족문화연구』 4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57~289쪽.
- _____, 2013, 「동학농민전쟁의 사상적 기반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동학(사상)과 농민전쟁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림』 45, 수선사학회, 141~182쪽.
- _____, 2015, 「『동학사』의 제1차 동학농민전쟁 전개과정에 대한 서술 내용분석」, 『한국사연구』 170, 한국사연구회, 61~95쪽.
- _____, 2015,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내재적 접근」, 『역사비평』 110, 역사비평사, 138~172쪽.
- 신진희, 2014, 「동학농민혁명 지역별 사례 연구의 성과와 전망」, 『역사연구』 27, 역사학연구소, 131~148쪽.
- 이진영, 2001, 「동학농민혁명 인식의 변화와 과제」, 『동학연구』 9·10, 한국동학학회, 73~99쪽.
- 이현희, 2006, 「대한민국에서의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현황과 특성」,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273~300쪽.
- 유바다, 2019, 「최근 북한의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연구 현황」, 『역사연구』 36, 역사학연구소, 295~320쪽.
- 왕현중, 2013, 「1893년 보은집회 연구의 쟁점과 과제 -주도층과 이념의 이중 교차」, 『동학학보』 28, 동학학회, 59~90쪽.
- 정유경, 2020, 「디지털인문학 분야의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7-2, 한국정보관리학회, 311~331쪽.
- 최광승, 2024, 「박정희 정권은 어떻게 동학과 천도교를 활용했는가」, 『한국학』 47-1, 한국학중앙연구원, 175~211쪽.

- 최민자, 2009, 「동학과 현대 과학의 생명사상」, 『동학학보』 18, 동학학회, 7~49쪽.
- 허 수, 2008, 「『개벽』의 ‘表象空間’에 나타난 매체적 성격 -표지 및 목차 분석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353~390쪽.
- _____, 2010, 「식민지기 ‘집합적 주체’에 관한 개념사적 접근 -『동아일보』 기사제목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4-1, 역사문제연구소, 133~193쪽.

〈기타〉

-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https://www.1894.or.kr/main/>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 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
- 동학농민혁명연구사논저목록
[https://db.history.go.kr/modern/level.do?levelId=prb_\\$1rem](https://db.history.go.kr/modern/level.do?levelId=prb_$1rem)
-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samil/home/main/main.do>
- 조선왕조실록DB <https://sillok.history.go.kr/>
- 지암일기 홈페이지 <https://jiamdiary.info>
- 한국 근대 사료 DB <https://db.history.go.kr/modern/>
- SlaveVoyagesDB <https://www.slavevoyages.org/>

〈Abstract〉

Research Trends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rough Data

- Focusing on the Papers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Archive* -

Team Nok-du* · Park, Jung Min**

This thesis aims to explore the trends and significance of research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ccumulated over multiple years, by utilizing informetric methodologies. To this end, bibliographic data from papers archived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chive*," established by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was used to analyze domestic research trends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from 1955 to 2021. Chapter 1 outlines the data processing procedures and the specific research methodology used for trend analysis. Chapters 2 and 3 analyze bibliographic information and changes in research topics based on the 2,133 data entries collected. Research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has been activated in cycles of ten years, with significant changes observed around the 100th anniversary in 1994 and the 120th anniversary in 2014. Moreover, it was found that the focus of research has gradually shifted from macrohistorical to microhistorical

* Team Nok-du of Jeonbuk National University, Member(Song Chi Young, Noh Yu Jin, Yu Yeon Seo, Lee Hye Rin)

** Associate Professor of Department of History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approaches. While early studies centered on the historical concept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ent research has increasingly focused on specific case studies targeting particular regions, individuals, and events. Through this process, a time-series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as conducted, and key turning points were identified.

Key word : Donghak Peasant Revolution,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chive, Digital History, Research Trend Analysis